

1.

제시문 가~다는 죽음에 대해 서술하고 있지만 이를 대하는 태도는 다르다. 우선 제시문 가, 다와 나는 인식 주체 따른 죽음의 인식 여부에 따라 나눌 수 있다. 제시문 가에서 말한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의 특성상 인간은 현재의 삶을 초월해 죽음에 대해 생각하며 죽음을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제시문 나에서 죽음을 인식하지 못하는 동물과 다르게 제시문 가와 다에서 인간을 죽음을 인식함을 보여준다. 이 때 죽음의 기피 여부에 따라 다시 제시문 가와 다를 나누어 볼 수 있다.

제시문 가에서 인간은 죽음에 대한 생각을 기피하지 않는다. 인간은 죽음을 끝이라고 여기지 않고 죽은 자가 영구히 산 자 곁에 머무르기를 원한다. 이에 따라 상당한 정성을 다해 죽은 자를 풍요롭게 매장하여 죽음을 애도하면서 죽은 자를 현세에 붙들어 놓고자한다.

이에 반해 제시문 다에서 인간은 죽음에 대한 생각을 기피한다. 이는 부패한 것의 악취와 추악함을 기피하는 인간의 특성과 삶에 대한 애착에서 발현되는 죽음에 대한 공포심으로부터 기인한다. 인간은 죽은 후 생전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리며 부패하는 죽음의 형상을 두려워한다. 따라서 인간은 이러한 죽음의 공포심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죽은 자를 간소하게 매장한다.

이렇게 죽음을 인식하는 제시문 가와 다의 인간과 대조적으로 제시문 나에서는 동물은 죽음을 인식하지 못함을 보여준다. 제시문 나에서 고릴라들은 죽음을 맞이한 마체사의 시체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며 이를 지켜본다. 지켜보는 것에 그치지않고 사체를 계속해서 폭행하거나 건드리는 모습에서 죽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죽은 자로부터 반응을 이끌어내려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가까운 친족 관계일수록 젖을 빨거나 털을 골라주는 등의 행동을 보여 죽음을 인식하지 못하는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처럼 제시문 가~다를 통해 죽음을 대면하는 주체에 따라 죽음을 인식하는 여부가 달라지며 같은 주체라도 죽음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짐을 볼 수 있다.

2.

제시문 라에서는 배설물에 관련한 말과 상황이 죽음의 연상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를 보여주는 실험을 제시한다. 배설물과 친구에 대한 연상을 바탕으로 한 실험 1과 화장실과의 관련성을 바탕으로 한 실험 2의 실험 결과를 통해 배설물에 관한 연상은 죽음에 대한 연상과 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제시문 가에서 인간은 다른 동물과 대조되는 특성상 죽음에 대해 생각한다. 죽음을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생각을 기피하지 않으며 죽은 자와 함께 머무르고자한다. 따라서 실험 1에서 친구에 관한 연상은 죽은 자와 함께 머무르고자 하는 죽음과 연관되어 죽음에 관한 단어의 수가 친구에 관해 연상한 집단 내에서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제시문 나에서 인간은 죽음을 공포의 대상으로 여기며 죽음에 대한 생각을 기피한다. 이러한 공포심은 부패의 악취와 추악함에 대한 사람들의 기피와 두려움에서 기인한다. 배설물에 관한 연상은 죽은 후 부패하는 것들의 악취와 추악한 모습과 관련된다. 따라서 배설물의 말과 상황에 관해 떠올린 사람들은 그러한 추악함을 두려워 하여 죽음에 대한 연상을 기피한다. 이에 따라 배설물을 연상한 사람들이 공포심으로 인해 죽음에 대한 단어를 완성시키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나는 제시문 다의 입장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제시문 다의 입장에서 제시문 라의 실험 결과를 볼 때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기피와 두려움으로 인해 죽음에 대한 단어를 완성시키지 못했다고 보는것은 타당하기 때문이다. 또 제시문 가의 입장에서 실험 2의 결과를 해석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 화장실에서 멀리 떨어졌다는 것이 함께 머무르고자 하는 죽음을 연상시켰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제시문 다에 관해서도 배설물의 악취나 추악함이 죽음에 대한 연상을 더 일으킬 수도 있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인간은 죽음에 대한 인상을 지우려고하고 이에 관한 생각을 기피하려 하기때문에 죽음에 관한 단어는 완성하지 못하는 결과는 타당하다고 재반론 할 수 있다. 따라서 제시문 라를 해석하는데는 제시문 다가 더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